

모차르트 이펙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찬송이펙트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23장)

클래식 음악의 힘을 뜻하는 '모차르트 이펙트(Mozart Effect)'란 말은 1990년대 초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음악을 들으면 나타나는 지능효과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면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프란세스 라우셔 박사가 이끄는 '학습과 기억에 대한 신경 생물학 연구소'에서 심리학과 대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K448'을 들려주고 지능실험을 치렀는데, 그 결과 음악과 공간 추리력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연구발표 다음날, 미국 전역에선 이 실험에 사용된 모차르트 음악들이 레코드 가게에서 날개 달린 듯 팔려 매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지지를 받아 세계 5대 메이저 음반사인 워너 뮤직 역사상 최다 판매 기록을 올렸다. 이들의 주장은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대뇌피질에서 신경세포의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특히 시공간적 추리력과 연결된 창조적인 우뇌의 작용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차르트 음악은 집중력을 높이며 직관적인 도약을 더욱더 쉽게 해주어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주의 집중이 개선되고 심지어 수학 실력까지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1736년, 찰스 웨슬레(Charles Wesley, 1707-1788)가 범선으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모든 승객들이 파선당할까 두려움에 쌓여 떨고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힘찬 찬송을 부르는 모라비아 교도들을 보게 되면서 찬송의 위력을 발견하고 크게 감동하였다. 이 후 피터 빌러(Peter Böhler)라는 모라비아 교도 지도자에게서 식사 도중 "내게 혀가 천개가 있을지라도 그 혀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라는 말에 영감을 받고, 18절로 된 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만 입이 내게 있으면(O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은 그 중 7절 가사였다. 원래의 영어가사인 '천개의 혀'는 우리나라에선 '만개의 입'으로 번역되었는데, 우리에게겐 원작보다 한층 더 은혜롭다. 입술에 하나님의 존영이 있다 하지 않는가(시 149:6). 만개의 그 어떤 중요한 일이라도 찬송보다 값진 일은 없다.

이 시엔 음악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찬송의 이펙트가 여덟 개 짝 열거되어있다. 찬송가운데 '구주 주신 은총을 깨닫게 되는 '은혜'와 감사의 이펙트, 삶의 현장에서 늘 '도와주시'는 인도와 보호의 이펙트, 솔로몬 때처럼 성전 가득 '크신 영광'을 보이시는 인재의 이펙트, 첫 번 성탄 때 천군천사들처럼 기쁨의 소식을 '널리 퍼 다 알게'하는 복음전파의 이펙트, 악신 들린 사울 왕을 다윗이 찬송으로 낮게 했듯 '위로'와 신유의 이펙트, 나날이 잔치 같은 '희락'의 이펙트, 기드온 용사가 나팔을 불며 빈 항아리를 깬듯 '죄의 권세를 깨뜨려 그 결박을 푸시'는 권능의 이펙트, 더럽고 '추한 맘을' '정케'하시는 사죄의 이펙트 등등... 웨슬리는 1738년 5월 21일 주일에 회심하였는데, 그 일주기를 기념하여 이 찬송을 지었다.



김명엽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교회음악아카데미 원장